

금호타이어 끝내 파국 치닫나

회사, 1199명에 정리해고 예고 통보

노조 쟁의조정 신청… 철야 농성 돌입

금호타이어 노사가 '정리해고' 대 '파업'으로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등 파국으로 내달리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3일 오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광주 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도 비슷한 시간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냈다.

사측은 신고서에서 "누적적자 확대 등 회사의 경영악화로 공장 운영 규모의 축소 및 그에 의한 임원인력이 발생했다"며 "1천199명을 다음달 2일 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측은 신고서 제출 직후 정리해고 대상자 1천199명(해고 193명, 아웃소싱 1천6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문자메시지에는 '4월2일자 해고(도급사 전적) 대상임을 예고합니다. 통지서 수령 : 과사무실'이라고 담겨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예정된 일정대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회사 측이 협상 재개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측도 "노조가 추가인원을 내놓는다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20% 삭감, 상여금 200% 삭감'을 제시했으며,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을 주장, 임금 삭감 폭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워크아웃 사태의 책임을 죄 없는 노동자에

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조직을 비상체계로 전환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예정된 일정대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회사 측이 협상 재개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측도 "노조가 추가인원을 내놓는다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20% 삭감, 상여금 200% 삭감'을 제시했으며,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을 주장, 임금 삭감 폭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GM·혼다 등

리콜 도미노

세계 자동차업체의 대량 리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은 파워 스티어링 작동 결함을 이유로 각각 19만대, 2만대를 리콜했다.

푸조 시트로엥도 일부 모델을 지난 달 초 브라질에서 1만4천대가량 리콜했다.

혼다도 지난 1월 원도 결함으로 전 세계에서 64만6천대를 리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에어백 결함을 이유로 어코드, 시빅 등 43만7천대를 리콜했다.

닛산은 전기선 연결 문제를 이유로 7만8천여대를 리콜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지난달 말 미국에서 신형 쏘나타의 도어 잠금장치 결함이 지적되면서 4만7천여대를 리콜하기로 했으며, 미국으로 수출된 투싼 ix 500여대에 대해서도 조수석 어택 자동으로 리콜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스포 전시장에서 열린 '2010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스포티지R'를 소개했다.

기아 '스포티지R' 세계무대 첫선

'제네바 모터쇼' 쏘울과 함께 전시

이달 하순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본격 생산되는 신차 '스포티지R'(프로젝트명 SL)이 '2010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디자인 아이콘이 '쏘울'도 함께 전시돼 '디자인 기아'를 홍보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스포 전시장에서 열

국과 유럽에는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부스 내 친환경차 전용 전시공간인 '에코 존'(Eco Zone)을 별도로 마련하고 친환경 콘셉트카인 '벤가 전기차'(Venga 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레이'(Ray) 등을 전시해 친환경 브랜드 '에코 다이나믹스'(Eco Dynamics)의 홍보를 극 대화했다. 또 기아차는 디자인 아이콘인 '쏘울'을 알리기 위해 '쏘울 존' (Soul Zone)을 마련, 쏘울 월드컵 래핑카를 전시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대우건설 FI 사모펀드 참여하라"

금호 채권단, 8일까지 동의서 제출 요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 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산업 은행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는 최종 방안을 제시했다.

3일 금융공회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우 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보유 중인 39%의 대우건설 지분을 파는 대신 산업은행의 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채 산업은행 PEF의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3~5년 후에 대우건설을 되팔 때 주가가 1만8천원을 유통하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파는 것보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채권단은 또 이 방안을 원치 않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천원에 산업은행에 넘기고 나머지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채권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 재무적 투자자들을 불러 이러한 방안을 설명해주고 이번 주말까지 방안을 선택해 동의서를 제출하고자 요구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번 주말, 늦어도 8일까지 입장장을 정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우건설 일부 재무적 투자자의 비협조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이 무산될 경우 이를 재무적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 위원장은 "재무적 투자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워크아웃이 원만하게 돼야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패자가 된다"면서 "(금호산업 법정관리 신청으로) 금호 측과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 양림 휴먼시아

400가구 특별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3일 광주시 남구 양립 휴먼시아 미분양 400가구를 특별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5㎡(31평)형 148가구, 84㎡(33평)형 213가구, 116㎡(44평)형 39가구다. 분양 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광주대 뒤편 광주 진월 주택전시관에서 접수하고, 순번 추첨 후 동호 지정 및 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 문의는 광주 양림 견본주택(062-361-6800)이나 광주 진월 주택전시관(062-653-8200).

(주)케이엔텍·(주)세오

기술개발 성능 인증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월 (주)케이엔텍의 '온라인 수질제어 자동분석기'와 (주)세오의 '횡단보도 불Brad LED 발광장치'에 대해 기술개발 우수성을 인정해 '기술개발제품 성능 인증서'를 수여했다.

광양에 있는 케이엔텍은 국내 유일의 극미량 유체공급 펌프 고정밀 제어기술과 온라인 수질분석기 전용 헤드, 컨트롤러 제조기술 등 현재 보유한 3가지 핵심기술을 인정받아 성능인증을 받았다. 광주의 세오는 건널목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이기 위해 LED 발광장치를 개발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KDB캐ns스 사모펀드

금호생명 인수 승인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KDB캐ns스밸류 사모펀드(PEF)가 금호생명 지분 65.6%를 인수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사모펀드는 산업은행과 캐ns스 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국민연금과 코리안리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살림살이 깐깐해졌다

경제위기 불구 작년 적자기구 크게 줄어

경기 침체 탓에 살림살이를 깐깐하게 해서일까? 지난해 전대 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도 오히려 가계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적자기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적자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던 1분위(소득 하위 20%)의 적자기구 비율이 60% 밑으로 내려갔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2인이상)의 적자기구 비율은 28.3%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을 조사한 2003년以來 최저 비율이다.

적자기구는 소득(가족분소득)보다 가계자산(소비지출)이 많을 경우를 말한다.

적자기구 비율은 카드 사태로 경기 침체를 겪었던 2003~2004년에 30.2%와 29.8%였고

2005~2007년에 29.7%, 29.3%, 28.5% 등으로 즐가다가 2008년에 28.9%로 다시 증가했다.

경기 침체 때 적자기구가 늘어난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지난해 감소한 것은 의외의 결과로 여겨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자기구 비율 감소는 경제위기로 맞아 소비를 줄인 기구가 많았기 때문일 것"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분위별 적자기구 비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를 빼면 모두 줄었다. 2분위는 2008년 34.2%에서 지난해 32.3%로 1.9%포인트, 3분위는 23.9%에서 22.1%로 1.8%포인트 떨어졌고 4분위도 16.4%에서 16.3%로 감소했다.

특히 2008년 60.6%였던 1분위 적자기구는 59.9%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622.44 (+7.32)

코스닥지수

509.63 (+1.67)

금리 (국고채 3년)

4.09% (-0.02)

원·달러 환율

1,146.50원 (-6.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훤 011-802-2522

(광주광역시 산본점, 대인동 소방서간판)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

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문은 반드시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훤 011-809-5221

(광주광역시 비비동 감자점 1층)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매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학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비고

경리 여 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월급

개발 남,여 0명 * 관련전공과 이수자 및 유 경험자 기본급+수당

아파트 여 00명 * 유 경험자 여 실장

토지 남,여 00명 * 초보자